

## 첫 번째 관구간 기획 회의



2024년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브라질 파소 폰도 시에서 제 1차 노트담 수녀회 관구간 계획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모임에는 카노아스 아파레시다 성모 관구와 파소 폰도 거룩한 십자가 관구의 수녀 116명이 모여 협력적으로 사명을 강화하고 내년의 다양한 통합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기획 세션은 기도와 형제애, 새로운 관점에 대한 개방성을 키우는 환경에서 베르나딘 수녀회의 엘리스안젤라 페레이라 마차도 수녀의 안내로 진행되었습니다. 선택한 방법론인 **감사의 문의**는 이전에 셀로 알려진 커뮤니티와 그룹에서 과정의 연속성과 시너지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입니다.

회의장 내 원탁에 둘러앉아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단체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원탁 중앙에 놓인 뿌리와 빛과 같은 상징적인 요소는 노트담의 영성을 반영했습니다. 뿌리는 수녀회의 창립 역사에 깊이 뿌리내린 사도적 사명을, 빛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이 회의는 또한 다음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깊은 영성과 통합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 **기억의 경축:** 특별 미사와 산타 크루즈 묘지 방문을 통해 세상을 떠난 수녀들의 삶을 기억했습니다.
- **한 해의 반추:** 두 지역의 역사와 사명에 기여한 중요한 사건들이 강조되었습니다.
- **친교와 기도:** 성찰, 공유, 계획을 통해 커뮤니티의 유대감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의 절정은 각 지역 리더들이 최근 인도 방갈로르에서 열린 준총회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발표는 내년 한 해 동안 지역 공동체가 나아갈 여정에 대한 귀중한 교훈과 영감을 제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각 공동체는 수녀원에 심을 과일나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상징적인 몸짓은 노트담의 사명과 사도직에 열매를 맺겠다는 참가자들의 투신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관구간 계획 회의는 노트담 선교를 강화하고 브라질 관구 통합 과정을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수녀들은 공동의 꿈과 시노드 정신에 따라 2025년을 위한 프로젝트를 고안하고 행동을 정의했습니다.